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

보도시점 2023. 7. 6.(목) 11:00 < 7.7.(금) 조간 > 배포 2023. 7. 6.(목)

리투아니아와 산업·통상 협력 강화 논의

-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
- 레이저 분야 협력 확대 논의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리투아니아의 경제혁신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리투아니아는 '21. 10월에 첫 주한 공관을 개설하고 '22. 6월에 첫 주한대사가 부임한 이후 한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6일(목) 14시 서울에서 아우스린 아르모나이테(Aušrinė Armonaitė)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한-리투아니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르모나이테 장관은 레이저코리아 2023(Laser Korea 2023) 참석차 리투아니아의 주요 레이저 기업 8개(Light Conversion 사(社), Ekspla 사(社) 등)와 함께 방한하였다. 이번 행사는 400개 기업이 참석하고 40개국에서 1.2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제 레이저기술행사이다. 리투아니아는 레이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자사 홍보 및 수주 활동을 위한 독립 부스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레이저는 절단·용접·열처리 등에 쓰이는 가공 기술로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뿐만 아니라 각막이식·라식수술 등 의료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안덕근 본부장은 리투아니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저 등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 기업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주무관	권민주 (044-203-56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